

‘행정인턴’ 끝나자 백수신세

취업연계 안되고 내년엔 절반으로 축소 … “차라리 취업준비나 할걸”

전남도청 32명 설문

“올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긴 하는데… 새해부터 다시 실업자 신세가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꽉 막히네요.”

전남도청에서 근무중인 행정인턴 A씨는 달랑달랑한 올해 달력을 보면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올 연말이면 행정인턴 프로그램이 끝나지만 아직 취직자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던 중 행정인턴에 참여했다.

당장 실업자 신세도 면할 수 있고, 행정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혹시라도 업무처리 능력 등의 평가로 취

업 가산점 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원했다.

특히 가족들 눈치도 무시하지 못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로 2년여 간을 ‘백수’로 지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시작된 행정인턴 프로그램은 이달 말로 종료되고, 내년에는 올해에 비교해 절반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또한, 근무시간도 올해 8시간에서 내년 6시간으로 줄면서 90만 원이던 임금도 내년에는 6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근무기간도 10개월에서 5개월로 5개월이 줄어든다. 사설상 아르바이트 수준이 되는 쉘이다.

전남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인턴은 88명, 이 중 32명(남성 16명·여성 16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2명만이 내년 취업이 예정돼 있고, 나머지는 모두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

에 놓였다. 또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8명이 ‘중도 포기’를 고민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중도 포기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인턴 업무가 단순 업무직으로 존재감을 상실한데다 아르바이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행정인턴 프로그램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일시방편으로 그치지 않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도입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가산점 반영 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인턴 B씨는 “단순한 실업자 줄이기가 아닌 체계적인 취업 연계방안 모색과 함께 행정 인턴 근무평가 등을 도입, 이를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중 평가는 우수한 인턴에 대한 특혜 또는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5%가 “영양부족”… 나트륨 섭취 324% 과다

우리나라 국민의 영양섭취가 심각한 불균형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8천 641명을 대상으로 한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필수영양에 못 미치는 영양섭취 부족자는 15.4%, 필요량을 넘는 영양 과다 섭취자도 4.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

량이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비타민A

등 영양소 섭취량이 필요량에 미

치지 못한 사람들로 여성의 경우 다이어트 등으로 인한 저체중, 영양결핍에 의해 19.3%나 됐다. 연령별로는 10~20대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높았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끼니 결식률도 높아져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21.5%에 달했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는 사람도 각각 4.7%, 4.4%였다. 특히 19~29세 청년층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2007년 42.5%에서 2008년 46%로 높아졌고 12~18세 청소

년층은 30.2%에서 26%로 낮아졌다.

영양소별로는 나트륨은 섭취기준의 324%, 인은 153%, 지방은 144%를 섭취하고 있지만 칼슘은 권장섭취량의 60.7%, 칼슘은 충분섭취량의 65.4%, 성장촉진요소인 리보플라빈은 87%에 불과했다. 에너지 섭취의 주요 공급원은 쌀밥이 36.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떡지고기 4.7%, 소주 3%, 라면 2.9%, 우유 2.5% 등이었다. 특히 남성에게는 소주의 에너지 공급원 비중이 4.6%에 달했고 여성에겐 떡 2.3%, 국수 2.1%, 빵 2% 등의 공급원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지자체 발주 공사

뇌물 제공자 배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뇌물을 제공자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과정에서 허

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사기 등으로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비공개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대형공사 설계 심의 등에서 뇌물을 공정성 시비가 있거나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한명숙 前 총리 소환 또 거부

검찰 오늘 출석 통보…한나라 공성진의원 출석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고, 공 의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면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강제 수단을 쓸 수 있지만, 검찰은 일단 14일 출석 여부를 지켜보니 향후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지검 관계자는 공 의원의 소환 시기와 관련, “아직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우리로서는 날짜가 정해지더라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 전 총리에게

14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다시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측은 이번에도 거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면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강제 수단을 쓸 수 있지만, 검찰은 일단 14일 출석 여부를 지켜보니 향후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지검 관계자는 공 의원의 소환 시기와 관련, “아직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우리로서는 날짜가 정해지더라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 전 총리에게



광주일보 수습기자 채용 시험

광주일보사는 13일 오전 광주시 동구 대성학원에서 제58기 수습기자 선발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4일 개별통보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17일 발표된다.

/위직령기자 jwi@kwangju.co.kr

친환경농 직불금

올 189억원 지급

전남도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올해 지급액을 189억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농업인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활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당 5㏊까지 3년간 지원된다.

전남 지역은 대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 가운데 6만6천845 농가, 5만9천101ha가 직불금 지급 가능도 확정됐다. 이는 전국 사업량(9만123㏊)의 61%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89억원이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대내 농가 수는 1만3천391가구가 늘었고 확정 면적도 1만1천142㏊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지난해 146억원에 비해 43억원 많아졌다.

도내 지금 대상 중 인증단계별로는 유기농 515㏊(752㏊) 6억원, 무농약 1만7천496㏊(가 5만849㏊) 68억원, 저농약 4만8천834㏊(가 3만9천810㏊) 115억원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1억이상 지방세 체납 113명 명단 공개

광주시와 전남도가 14일 관보와 시·도청 홈페이지(www.kwangju.go.kr)에 1억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3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와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포함된다.

광주시는 지난 2일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 197억 원에 대해 대상자 67명(법인 35명·개인 32명)을 확정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개인 34명 57억 원, 법인 32곳 122억 원 등 총 66명, 179억 원이 체납됐다.

전남도는 개인 21명, 법인 25명 등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운공인증개사

☎ 011-9618-3356, 955-0808

빌딩 매매

• 토지 330평 건물 2300평 매매가 50억 보증금 5억 월 5200만원

• 토지 310평 건물 350평 매매가 28억 보증금 5억 월 1700만원

• 토지 160평 건물 650평 매매가 24억 보증금 8억 1000만원

• 토지 95평 건물 280평 매매가 12억 보증금 2억 월 700만원

• 토지 85평 건물 310평 매매가 12억 보증금 15000만원 월 800만원

● 광주 전지역 ● 수의 삼기건물 구합니다 (매수자 대기증)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을 비밀리에 매매해드겠습니다.

상기 ☎ 955-0808 전문 FAX955-0308

가온공인증개사

☎ 371-4449 / 010-8289-8549

(상무지구 렌드피시거리)

신축중인 최고급 무인텔 매매

대 지 : 736평

연간평 : 883평

객 실 : 32개

매매가 65억원

용 자 : 30억원

월매출 : 1억원

이상 보장

공동증개

환영 합니다.

경리 간부 및 사원 모집

대한페이퍼텍 주식회사는 산업용글판지원지 생산제조업체로서 광주·전남지역의 유일한 제지생산업체입니다. 당사는 제조회사 경리실무 경력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음 -

- 회사 명 : 대한페이퍼텍 주식회사
- 소재지 : 전남광주 남구 대전면 대치리 1063-2
- 업 종 : 제조
- 매 출 액 : 700억원/년
- 근무예정지 : 본사 담양공장 (광주 북구 우치공원 5분거리)
- 근무조건 : 주5일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 모집부문 : 경리 겸직자 간부사원 0명, 회계겸직자원 0명
- 응시자격 : - 간부사원 (경리분야 10년이상 간부경력자)
 - 회계담당 (회계담당 10년이상자)
 - * 제조업 결산(세무조정 포함) 가능자
- 모집기간 : 2009년 12월 14일 ~ 2009년 12월 23일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최소 희망연봉기재,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본부 (우편접수 가능)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담당자 : TEL) 061-380-0312, FAX) 061-380-0398
E-mail : mutank290@hanmail.net
- 기타사항 : - 원서 마감후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려하지 않습니다.
 - 제조업계 종사자 우대합니다.

대한페이퍼텍(주)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기관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